

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일본기업

- 미쓰비시상사는 터키 기업과 협력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규모 비료 플랜트 건설 수주에 성공, 터키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로 진출
- 중앙아시아는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력도 커 향후 소비 시장으로 기대 되어 각국의 진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

□ 터키를 교두보로 중앙아시아 개척

- '14.8월 미쓰비시상사는 터키 재벌그룹인 차르크홀딩스와 협력하여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 투르크멘히미야로부터 약 13억 달러 규모의 대형 비료 플랜트 수주, 공동으로 설계·조달·건설계획
 - * 플랜트 규모 : 하루 생산량 암모니아 2000톤, 요소 3500톤(전량 수출)으로 세계 최대
 - * 건설지 : 카라보가스
 - * 생산 개시 : 2018년 6월
 - * 관련 기업 : 미쓰비시중공업, GAP Insaat Yatirim ve Dis Ticaret A.S.(차르크홀딩스 산하)
- 일본기업들이 터키를 발판으로 자원이나 잠재성장력이 커 주목받고 있는 중앙아시아·카프카스 지역의 시장개척 움직임이 확산
- 투르크메니스탄의 1인당 GDP는 '94년 1135달러에서 '04년 2470달러로 증가, '14년에는 8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과 잠재성장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신흥국시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앞서서 진출하고 있음
 - 중국은 '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약 70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, '12년 투르크메니스탄의 對中 수출이 50% 이상 차지
 -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들을 포함한 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고, 안보에서도 지역분쟁 중개 등 영향력을 유지
- 미쓰비시중공업은 1958년부터 비료 제조 플랜트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'08년 알제리, '10년과 '13년 러시아, '11년 말레이시아에서 수주

- 미쓰비시상사는 '14.6월에도 터키 정부로부터 지하철용 철도차량을 수주, 터키에 무인운전시스템을 최초로 구축

□ 성장이 주목되는 터키·중앙아시아

- 카스피해 주변 중앙아시아·캅카스는 천연가스와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음
- 중앙아시아·캅카스는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화학 플랜트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 및 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큼
- 최근 일본기업의 터키 현지법인이 중앙아시아·캅카스 시장을 개척하는 사례가 증가
- 에어컨을 생산하는 다이킨공업 터키 법인은 '13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34% 증가한 약 328억 엔을 기록, 중앙아시아·캅카스지역 수출은 58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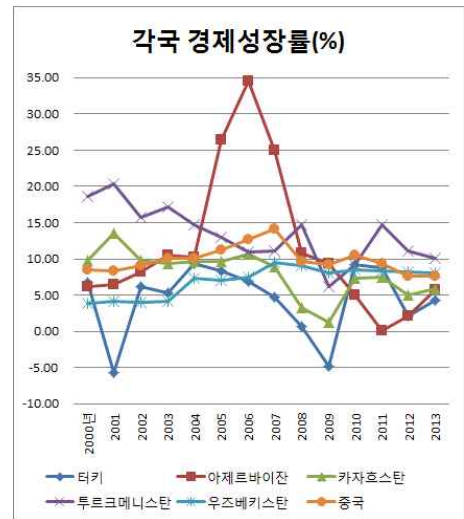
- 도요타자동차 터키 법인은 '13.7월부터 카로라 수출을 시작, '15년에는 전년대비 36% 증가한 약 4000대 수출을 목표
- 국제협력은행은 터키 금융기관에 총 22억 달러의 협조융자를 예정, 터키 기업이 중앙아시아 주변국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기자재를 조달할 때 자금조달을 지원



자료 : 닛케이신문(2014.8.19)

- 미쓰이조선은 '13.9월 터키 건설기업·르네상스 홀딩스와 공동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업비 약 2억 달러 규모의 유상 플랜트를 수주
- 터키의 '14.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.1%로 시장의 예상보다 2.7%를 하회하여 경기침체가 우려

- 터키 정부는 경상적자 대책으로 연료나 자동차수입을 억제시키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(특별소비세)를 인상,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
- 내수 감소로 민간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4.1% 감소
- ‘14.8월말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임하여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신정부가 출범, 주변 이슬람 국가들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



자료 : IMF

□ 시사점

- 우리나라도 카자흐스탄,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플랜트, 발전소 수주활동을 추진
- 중앙아시아는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·영화, K-pop 등 한류가 확산되고 있어,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큼
- 한·터키 FTA 협상도 마무리되어, 우리나라가 터키에 최초로 서비스·투자를 개방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- 터키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, 중국, 일본 등이 전략적 중요 국가로 선정
- 다만, 터키 리라는 ‘13년말~’14년 초까지만 해도 프래질 파이브(Fragile Five; 취약한 5대 통화)로 평가되어 통화위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4.6.20, 8.19, 9.11)